



삼성그룹 OEM폰트 개발 태풍의 눈으로

올 한해 주요 폰트 개발업체의 신 서체 발표 현황을 보면 산돌글자은행이 8벌 24종, 아시아폰트가 7벌 12종, 한양 정보통신이 11벌 28종을 발표했으며, 소프트매직에서 신 명서체를 인수한 세일포트마에서 기존 서체의 간격을 조절 한 출판용 서체 10종과 새롭게 디자인한 출판용 서체 13종을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총 39벌 77종의 서체가 출시될 예정이다.

2003년도는 폰트 개발 업계의 주요한 특징은 삼성 그룹의 OEM 폰트 개발, 인쇄에서 활용 가능한 폰트의 무료 공급, 삼성 그룹의 자체 폰트 개발, 신명서체의 보완 작업을 들 수 있다. 산돌글자은행이 수주한 삼성 그룹의 OEM 폰트 제작은 올 한해 폰트 업계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될 듯 싶다. 지난 1997년부터 계획된 삼성 그룹의 OEM 폰트 제작 건은 IMF라는 좋지 않은 경제여건 때문에 무산된 바 있는데 2002년에 그룹의 최고 소유자인 이진희 회장에게 올린 보고서가 발단이 되어 재차 추진되기에 이르렀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올 초에 산돌글자은행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삼성 그룹 OEM 폰트는 2004년 11월중에 납품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삼성 그룹의 규모로 보았을 때 10억 원은 넘지 않겠느냐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삼성 그룹의 OEM 폰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고가의 제작단가 때문만은 아니다. 산돌글자은행이 납품 예정인 삼성 그룹 OEM 폰트는 이진희 회장에 대한 보고서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후에라도 전자나 몰산 쪽의 필요로 인해 포괄적인 한 벌의 서체가 주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폰트가 아닌 특정 문자만 주문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에서 삼성과 같은 종류의 주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소프트매직의 신명서체 부문을 인수한 세일포트마가 12월에 발표 예정인 출판용 서체인 new-sm서체도 눈길을 끈다.

일본의 경우 모리사와나 샤켄 같은 서체 회사들은 많은 종류의 서체를 발표하기보다는 발표된 서체를 계속 다듬어서 브랜드화 시켜나가는 추세이다. 아울러 하나의 신 서체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제작기간도 2년이 넘게 걸리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서체를 다듬기보다는 모양을 변형 시켜서 새로운 서체를 발표하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일포트마에서 12월 중순에 발표 예정에 있는 new-sm서체는 사정이 좀 다르다. new-sm서체의 전신은 sm서체이다. 그리고 sm 서체의 전신은 *표 서체이다. 그만큼 서체가 다듬어 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일포트마 흥기의 이사는 이와 관련해 “많은 종수의 서체를 발표하는 게 회사의 업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new-sm서체는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다듬고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일포트마의 이번 행보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새롭게 다져지는 서체가 제목용 보다 훨씬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본문용 서체라는 점이다. 활용 가능한 폰트의 무료 공급 추세도 올해의 주요 특징이다. 지난 7월 24일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일반 PC에서도 활용 가능한 ‘QuarkXPress 4.1’을 발표한 인큐브테크는 시장 공략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True Type 폰트를 기본으로 하는 337종의 Qfont를 발표하고 ‘QuarkXPress 4.1’ 구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인큐브테크 외에도 소프트매직이 자사의 편집 프로그램인 ‘M-Layout’의 시장 공략을 위해 207종의 폰트를 ‘M-Layout’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매직에서 제공하는 폰트는 OS X 버전에서 활용 가능한 폰트여서 향후 OS X의 공급에도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7종의 폰트 중에 디자이너의 활용도가 높은 폰트가 많지 않다는 게 한가지 아쉬운 점이다.

(이용우 기자)